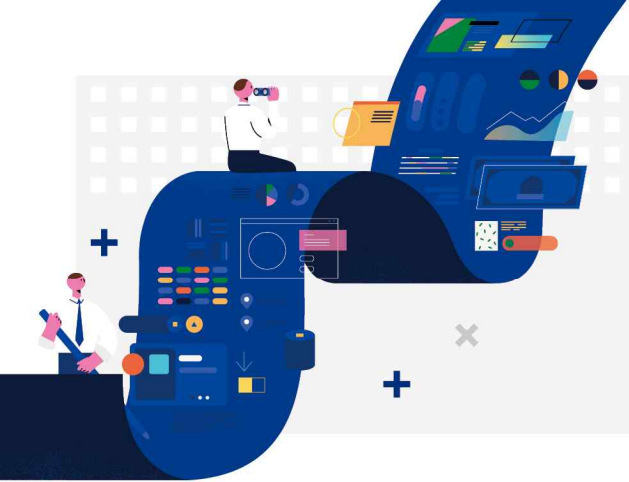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1호 (2024.11.08)

- 이 슈
(부동산) 최근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인천시 주택시장 동향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1호 (2024.11.08)

Cotents

I. 이 슈

(부동산) 최근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인천시 주택시장 동향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금융)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료율 할인 시작 11

(산업) 미 재무부, 오는 12월 27일부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시행 11

(금융) 실손보험 청구, '실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 12

(교육)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개통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편의 향상 12

(교통) 정부, K-MaaS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 · 13

(복지)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13

(주거) 10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14

(경제) 11월 9일부터 20일간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김종원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금융시장 #대출규제 강화 #주택시장 #주택담보대출

-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가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2022년 이후 국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축소와 최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하락 및 신규 대출 규제 등의 금융 여건 변화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담대 금리상승 등 차입비용 증가는 주택·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 하락에 영향
 - 국내 주담대 금리는 2020년 8월 2.39%에서 2022년 10월 4.82%까지 상승하였으며, 해당 시기 이후인 2023년 초의 인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0.4% 하락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3.50%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주담대 금리는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¹⁾으로 2022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및 인천지역 금융기관 주담대 잔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21년 수준으로 상승
 - 2024년 8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51%로 동일 시점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동일 기준 인천 주담대 잔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7.56%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년 평균 증감률인 8.18%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
 - 특히 상대적인 고금리²⁾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담대(신규취급액 기준)는 90% 이상이 고정금리대출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주담대의 상환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가계의 채무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주택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³⁾되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주담대 예비 차주⁴⁾의 채무부담 역시 가중되는 상황
 - 인천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4월 둘째 주 이래 지속 상승하며 8월 들어 큰 증가 폭을 보였으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직후인 9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상승세는 다소 완화
 - 금융당국은 과거의 주택가격 상승기 대비 완화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보여왔으나,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⁵⁾의 시행을 통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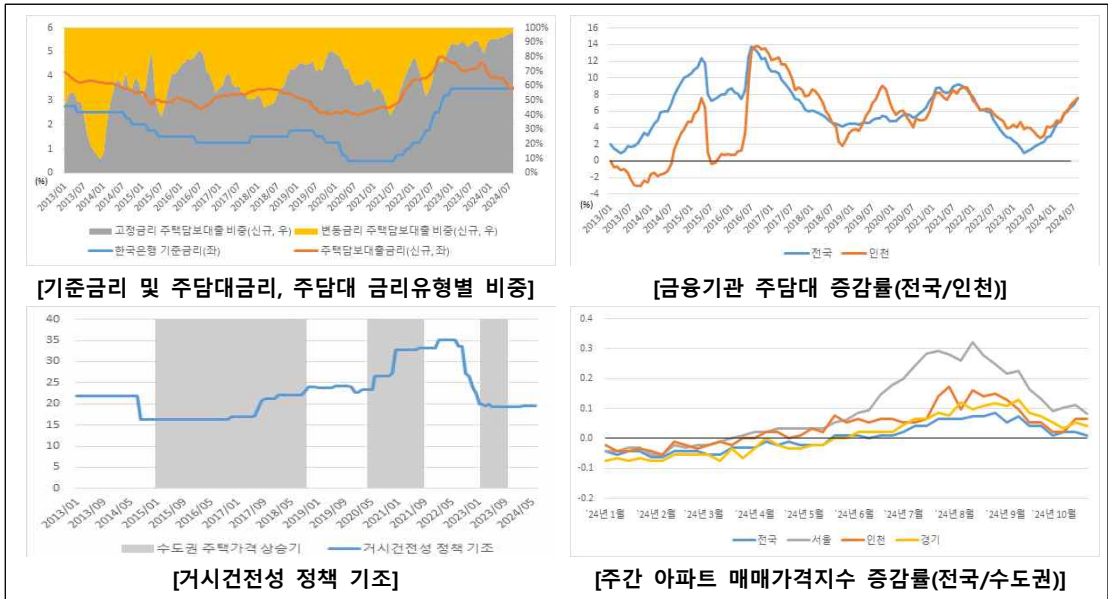
1) 뉴스1(2024.10.13)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규모 등으로 인해 다음 인하 시점은 3개월 이후인 내년 2월로 예상하며, 3분기경 추가 인하를 거쳐 내년 말 2.75%를 전망.

2)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과거 10년('14.09~'24.08) 평균 수준인 3.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3) 한국은행(2024.09.)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거래와 전체 가계대출의 상관계수가 2010년대 0.45에서 2020년대 0.6~0.7로 증가.

4) 주담대 예비 차주란 주담대를 활용하여 주택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대출 실행자를 의미.

-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의 금융 여건하에서 인천시 주담대의 잠재 리스크 및 관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여,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참고 및 재구성
- * 주 1 :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별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 : 금융기관 주담대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전주대비를 기준으로 작성
- 3 :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한국은행에서 LTV, DTI, DSR 규제 비율 및 적용 범위를 고려해 2000년을 0으로 설정하여 자체 시산한 자료를 참고(규제 강화 시 증가, 규제 약화 시 감소)

[그림 1] 우리나라 금융시장 여건 및 부동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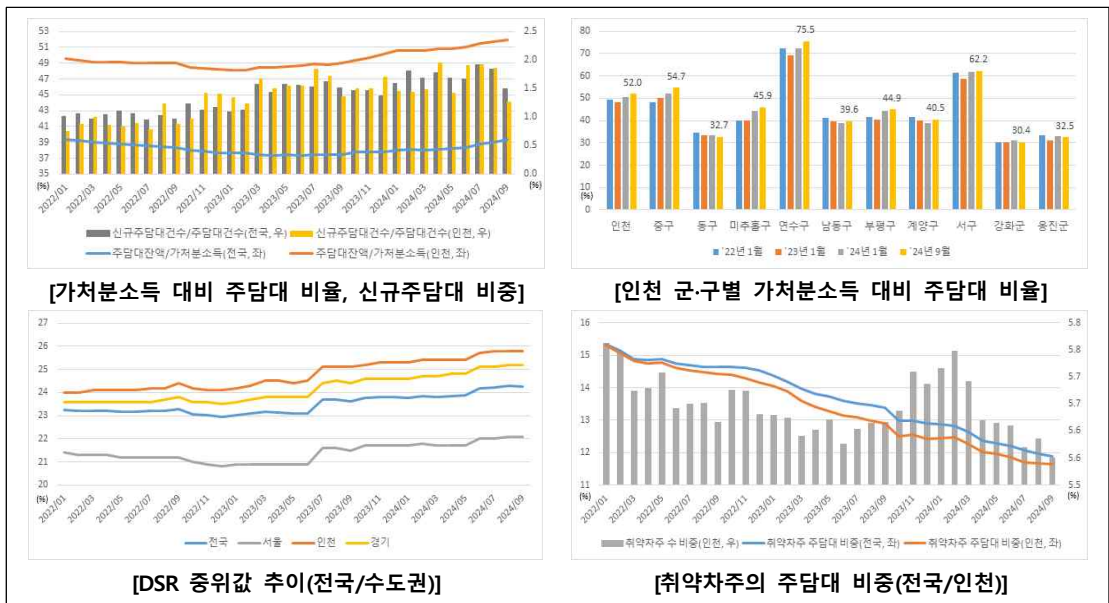
○ 인천시의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⁶⁾이 전국에 비해 높아 대출금리 변동이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취약차주 대출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로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

- 인천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의 고금리하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주담대 비율 및 신규 대출의 증가세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
 - '24년 9월 기준 인천지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은 전국 대비 약 10%p 이상 높은 52.0%로, 올해 들어 50% 수준을 상회
- 인천시 군·구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수구 △서구 △중구 등 신도심에서 인천 전 지역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들 신도심 지역과 함께 미추홀구 및 부평구 등 인천 내 주요 거주 지역⁷⁾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은 '23년 1월 이후 증가세

5)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황 부담 증기를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2단계에서는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적용.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의 대출한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

6) DSR(Debt Service Ratio)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대출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포함하여, 'DSR = (차주의 연간 대출상환액/연간 소득)×100'으로 산출. 본 고에서는 KCB 신용융합정보에서 추출한 표본 중 대출이 있는 차주의 DSR 중위값으로 계산.

- '24년 9월 인천시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은 지난 1월에 비해 2.7%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중구(5.0%) △연수구(4.4%) △계양구(4.0%) △미추홀구(3.7%) 등을 중심으로 비율이 증가했으나 △강화군(-2.7%) △동구(-1.6%) △옹진군(-1.5%)은 감소
- 가처분소득 대비 주담대 비율의 상승과 함께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SR 역시 인천을 포함한 전국 및 수도권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인천시의 DSR이 전국 및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 '24년 9월 기준 인천의 DSR은 전년동월대비 2.8%, '24년 1월 대비 2.0% 상승⁸⁾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부평구(4.2%) △동구(4.2%) △계양구(3.9%) △미추홀구(2.8%) △서구(2.6%) 등이 전년동월대비 기준 증가하며 인천시 전체의 DSR 상승을 견인
- 인천의 취약차주⁹⁾ 비중은 2024년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주담대 잔액 대비 취약차주 잔액의 비중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인천시의 전체 대출 차주 대비 취약차주 수 비중은 '23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¹⁰⁾가 도입되는 등 2024년 들어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소세
- '24년 9월 기준 인천시 가계의 전체 주담대 잔액 대비 취약차주 대출의 비중은 11.7%로, 서울(8.9%)보다는 높고 전국(11.9%)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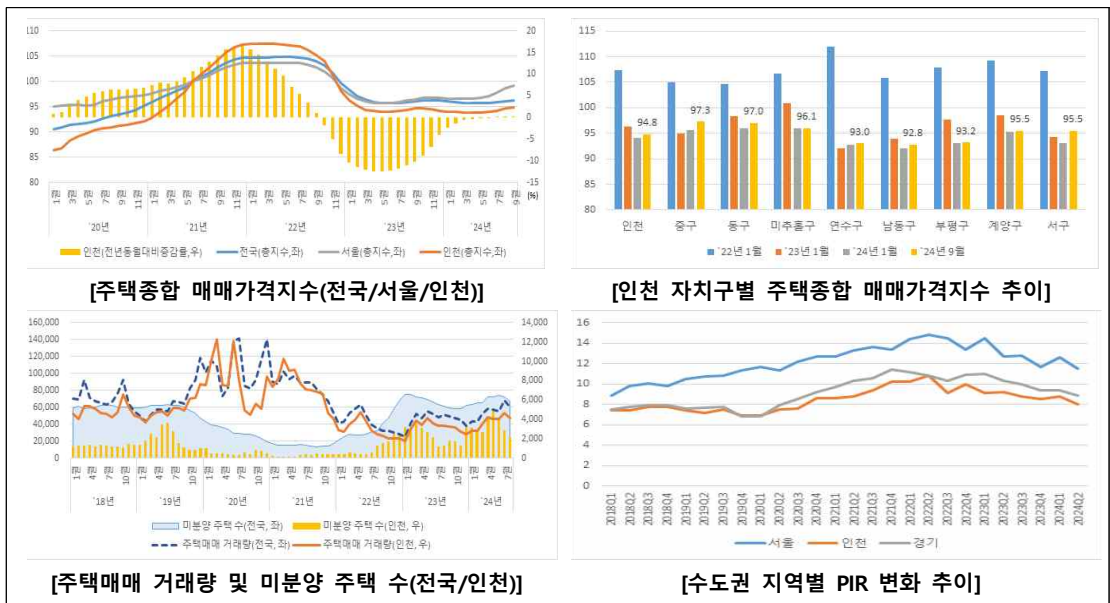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건전성 진단

- '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군·구별 인구 비중은 △서구(20.9%) △부평구(16.4%) △남동구(16.2%) △미추홀구(13.6%) △연수구(13.2%) △계양구(9.3%) △중구(5.5%) 등 순.
- 이는 2024년 9월 기준 전국 전년동월대비 DSR 증가율인 2.6%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인천의 DSR은 전년동월대비 4~5%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상승세가 2%대로 완화.
- 인천연구원(2024.06)과 동일하게 취약차주를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700점 미만)인 차주로 정의.
- 스트레스 DSR 1단계는 '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0.38% 적용.

- 지난 금리인상기 동안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주택 수요 축소로 인해 하락했던 인천의 주택가격은 '24년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22년 이후 지속되던 주택거래량 하락과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역시 개선되는 추세
 - '22년 4월 고점을 달성한 인천시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4월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전국보다 낮은 수준
 - '24년 9월 인천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월 대비 0.85% 상승하여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2.67% 상승하는 등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¹¹⁾
 - 인천시 자치구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대체로 '23년 1월부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구 △연수구 △서구 등 신도심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인천 내 주택 경기는 회복 조짐
 - 인천시의 주택거래량은 2024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 8월 증가세가 둔화하였으며, 보험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수와 달리 인천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4년 5월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¹²⁾은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의 흐름과 유사하게 '22년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서울-경기에 비해 PIR이 낮은 수준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KB부동산, 국가통계포털(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을 기준(100)으로 한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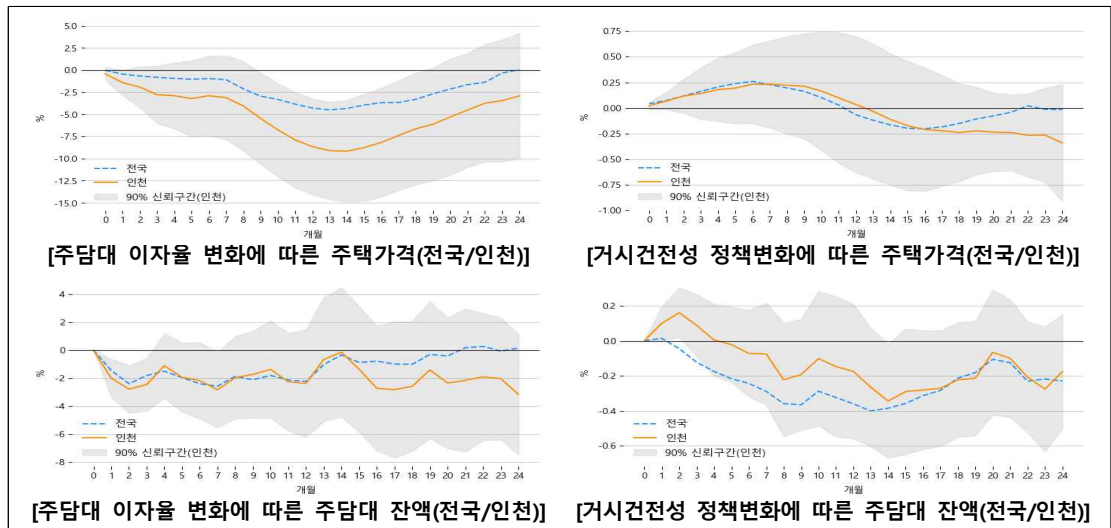
2 : 주택매매 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수는 호 단위로 작성

[그림 3] 부동산 가격 현황과 거래량 및 미분양 추이

11) '24년 9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초 대비 0.27% 상승하였는데, 수도권이 1.2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0.66% 하락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강화. 특히,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이 1.82% 상승, 비수도권 1.09% 감소로 그 격차가 더욱 심화.

12) KB부동산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을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때 가구소득은 분기별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을, 주택가격은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을 이용.

- 충격반응함수¹³⁾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택시장은 주담대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는 전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나, 거시건전성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 인천시 주택가격은 주담대 이자율 충격(변화)에 음(-)으로 반응하며 전국에 비해 민감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 거시건전성 정책충격(변화)은 주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인천 주택가격에 대한 이자율 충격의 영향은 충격 발생 시점으로부터 점차 확대되어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커지며, 이후 감소하는 흐름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¹⁴⁾
 -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충격에 대한 인천 주택가격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거시건전성 정책보다 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인천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 인천시 가계의 주담대 잔액 역시 이자율 충격에 대해 음(-)으로 반응하나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채조정(디레버리징) 폭과 기간¹⁵⁾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충격은 주담대 잔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주담대 잔액에 대한 이자율 충격의 영향은 최대 감소폭(증가율 기준)이 주택가격의 반응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영향 기간도 충격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다소 짧은 것으로 분석
 - 거시건전성 정책충격에 대한 인천시 가계의 주담대 잔액의 반응은 음(-)으로 나타났으나 상당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주담대 잔액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¹⁶⁾



* 주 : 2008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담대 잔액 및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로 활용
 [그림 4]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충격반응함수

13) '충격반응함수'란 특정 시점에서 한 변수의 변화(충격)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 살펴보는 거시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본 고에서는 Jordà(2005)의 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 내 변수 구성과 순서는 한국은행(2018.07)과 KDI 경제전망(2023.05)을 참고. 본 고에서는 이자율이 1%p 상승 또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가 1p 상승하는 충격에 대한 영향을 신뢰구간은 90%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주담대 이자율,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순.
 14) 한국은행(2024.09)의 금리 수준별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모두 고금리보다 저금리일 때 그 반응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리의 인천시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인상 기조일 때 인하 시기보다 클 것으로 예상.
 15)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의 비유동성, 대출 규모의 차이, 장기의 상환기간 등으로 인해 금리변동에도 부채조정이 어려운 구조.
 16) 다만 거시건전성 충격에 대한 전국 주담대 잔액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성은 유효한 것으로 분석.

- 인천시의 경우 주담대의 부실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주택시장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중 대출금리 조정의 영향으로 가계가 보유한 주담대 잔액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추후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동향을 재점검할 필요
 - 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역시 다소 완화되며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우려¹⁷⁾
 -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내비침에 따라, 금융당국의 주택가격 증가세 및 가계 주담대 규모의 점검과 가계의 부채 상환 건전성 유지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행이 필수적
 - 인천시의 경우 가계의 주담대 규모 및 DSR 수준이 타 시도 대비 높은 편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리스크)이 존재하나, 주담대의 부실 위험이 낮은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
 - 다만 근래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¹⁸⁾하고 있어, 차후 차주의 부채 부담 및 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 인천시 주택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4년 들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 '24년 9월 기준 인천의 주택가격전망CSI는 인천 주택가격 상승기('21년)의 평균값인 128.6과 유사한 126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주택 투자 심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인천 주택시장의 변화에는 주담대 이자율 등 금융시장의 여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 인천 주택시장은 주담대 금리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중 대출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추진 등 전국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에 맞추어, 관내 고위험 차주에 대한 부실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미시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

17) Cecchetti et al.(2011)은 적정수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후생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이 비율이 85%를 상회 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불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금융위원회(2024.06.09)에 따르면 '23년 4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최근 가계부채의 누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18) 한국은행(2024.10.22)에 따르면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월대비 증감액은 '24년 7월 2,454억에서 8월 1,729억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4년 7월 580억에서 8월 1,751억으로 대폭 증가.

제조 >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2024년 9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1.0%, 전월대비 2.2% 감소한 50,822억 원으로,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
 - 기계장비산업 총수출액은 계절적 비수기 시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해외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감소세
 - 대리점 수요는 '23년 6월 이후 6,000억 원을 밑돌며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 수요 역시 '24년 들어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
 - 국내 수요의 경우 지난 7월 전년동월대비 23.3%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9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지난해 '23년 9월 이후 최저 수출액을 기록
 - 2024년 3분기 기계장비산업 총수출액은 173,0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 전기대비 4.5% 감소하는 등 2분기 연속 감소세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출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총수출액 (증감률)	57,567 (6.4)	68,888 (-5.6)	58,820 (-7.3)	59,029 (-1.0)	63,332 (-20.6)	70,246 (23.3)	51,961 (-4.1)	50,822 (-11.0)
국내 (증감률)	30,008 (25.6)	34,918 (1.5)	28,519 (-11.0)	29,486 (8.3)	27,398 (-11.5)	41,176 (43.2)	26,826 (4.2)	25,724 (3.5)
대리점 (증감률)	4,294 (-5.7)	5,248 (-5.8)	5,089 (-7.5)	5,447 (0.3)	5,588 (-7.7)	4,968 (-11.6)	4,383 (-16.4)	4,335 (-7.6)
해외 (증감률)	23,265 (-9.4)	28,723 (-12.9)	25,212 (-2.6)	23,736 (-11.0)	30,346 (-29.0)	24,101 (6.8)	20,752 (-10.5)	20,763 (-24.7)

* 자료 :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2024년 9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2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업황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관련 부문 수출액은 약세
 - **(생산지수)** 전국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2% 증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01.5 수준으로, '24년 들어 생산지수가 기준치(100)를 맴도는 약보합세가 지속

-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7-8월 내 90대에 머무르다 9월 들어 소폭 상승하며 업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24년 들어 출하지수와 함께 90-110 수준의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
- 2024년 9월 기준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한 128.9,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한 100.6 수준으로, 재고지수와 출하지수 간 격차는 다소 감소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9월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427.6천만 달러 수준¹⁹⁾으로 지난 7월 이후 급격히 감소
 - 기초산업기계 수출액은 '24년 9월 기준 전월대비 3.9% 증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한 135.6천만 달러. 산업기계 역시 전월대비 2.7% 증가, 전년동월대비 22.3% 감소한 127.7천만 달러 수준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은 전월대비 8.3%,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한 67.8천만 달러, 정밀기계는 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한 96.5천만 달러를 달성
 - 대체로 지난 7월 대비 8월에 수출액이 급락한 후 9월 들어 소폭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나,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은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들어 최저 수출액을 기록
- **(인천)** 인천의 2024년 9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31.8 수준으로 생산 경기 호조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액 감소세는 소폭 증가 전환
 - **(생산지수)** 2024년 9월 기준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 전월대비 14.6% 감소한 131.8로, 전국 추세와 달리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경기 호조세는 다소 둔화하는 추세
 - **(품목별 수출액)** 9월 인천의 기계장비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4.0% 증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한 약 42.4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지난 8월 급락했던 수출액이 소폭 회복
 - 기초산업기계는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12.1천만 달러로 '24년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기계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7.6% 감소한 15.1천만 달러로 '23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이 전년동월대비 1.5%, 전월대비 5.3% 감소한 7.1천만 달러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밀기계는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 전월대비 9.4% 감소한 8.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3년 5월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다소 주춤

[표 2] 국내 기계장비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4.06	'24.07	'24.08 (p)	'24.09 (p)	'23.09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108.8	99.9	93.8	101.5	102.1	8.2	-0.6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162.1	149.2	154.4	131.8	108.9	-14.6	21.0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9) 기계장비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의 수출액 합산 값을 의미.



[기초산업기계(MT171)]



[산업기계(MT172)]



[정밀기계(MT1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1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4.09)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9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4.9	-2.5	147.6	0.2	122.0	-27.8	161.6	5.1	172.1	6.6	156.2	-3.9
자동차	114.8	-0.5	113.3	-2.2	120.6	2.9	116.3	2.1	107.9	-8.6	113.3	-1.0
기계장비	101.5	-0.6	100.6	-6.9	128.9	-4.2	131.8	21.0	114.2	-1.6	138.5	-15.8
바이오-의약	156.8	21.0	143.0	-0.7	-	-	342.4	114.3	168.1	-17.7	-	-
바이오-화장품	88.7	1.6	91.1	-0.1	105.6	9.2	111.9	8.0	100.7	1.9	117.7	21.6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6,274	184.4	102,856	-6.4	974	147.0	4,117	-19.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금융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료율 할인 시작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을 0.2%p 할인하는데 협의하고, 지난 10월 23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작
 -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직·간접 혜택을 수혜 가능
 - 금번 보증료율 할인은 신용보증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신용보증 우대부문보증으로 선정하여 보증 한도 우대 및 신용보증료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부문보증은 △일반 보증한도(30억 원) 차감 △자기자본한도 적용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지원하던 제도를 보증료율 0.2%p 할인 적용으로 확대
 - 해당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2, 4349)’에서 문의를 받고 있으며, 보증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진행 가능

산업

미 재무부, 오는 12월 27일부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재무부는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최종 가이드언스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12월 27일부터 해당 공제 적용을 시행할 계획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
 - 동 공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배터리·태양광·풍력 부품의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 동 공제의 최종 가이드언스가 기존 발표되었던 잠정안 대비 △배터리 모듈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 생산비용 범위 확대 등 일부 대상 규제에 대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 진행이 가능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며, 전산화 완료 기관의 환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원할 경우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를 전자 전송할 예정
 -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에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입원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별도 전송이 가능
 - 금융위와 보험개발원 등은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 제거를 위해 참여기관에 포스터·리플렛 배치를 완료했으며,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청구 관련 문의를 응대할 계획
 - 복지부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는 전산화가 미참여 의원·약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교육부

- 교육부는 202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의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하여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
 - '유보통합포털'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
 - 동 포털 개통으로 인해 기존에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하던 시스템이 통합되었으며, 학부모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각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비교·신청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기능을 추가
 - 교육부는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웹 사용 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도 별도 운영할 계획
 - 포털의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용 안내 글 및 영상을 통해 확인하거나, 상담센터(유치원 1544-0079-9-1, 어린이집 1566-3232-1)를 통해 유선으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슈퍼무브’라는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으며,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해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
 - *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시간표 조회 △예약·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앱(‘슈퍼무브’)을 활용해 전국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
 - 대광위는 K-MaaS의 교통 분야 서비스 앱 개시에 이어 향후 교통·관광·숙박 등으로 확대·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를 실시
 - 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할 계획으로, 금번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가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 2023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 오는 12월 2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통해 2025년 1월 말 지급 예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2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
 -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2023.12.31. 기준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		재산 요건 2023.06.01.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홀벌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발생분부터 상향)	가구원 전체의 재산 2.4억 원 미만 (부채 미차감)
맞벌이	신청인,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 원 미만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 : 50%만 지급

주거

10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 정부가 6년 동안의 안정적 거주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10월 31일 시작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 317호와 든든전세 774호를 합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
 - 월세형의 경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든든전세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할 계획
 - 동 주택의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및 자산 3.62억 원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자유로이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 가능
 -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의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할 예정
 -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된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제

11월 9일부터 20일간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토)부터 11월 30일(토)까지 약 20일간 개최될 예정
 - 금년 코세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사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여 △생필품(식품·패션·의류·완구) △내구소비재(자동차*·가전*·타이어) △문화·레저(숙박·놀이공원·외식업·영화관) 등 다양한 품목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가전·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공식 개막에 앞서 11월 1일(금)부터 이미 코세페 할인을 개시
 - 이 외에도 이색 할인행사로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식음료 8개 사의 네이버 타임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지자체 e-몰 코세페 특가전 △중소기업 상생기획展(온라인 플랫폼)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방한관광객 대상) 등이 준비
 - 금번 코세페 참여기업과 품목·할인율 등 행사의 상세 내용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별 세부 할인행사 내용은 기업이 정한 시점에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확인이 가능

참고 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2024.10.11.
- 뉴스1, “38개월만에 ‘긴축 종료’…다음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1~2월””, 2024.10.13.
- 금융위원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024.06.24.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2024.09.12.
-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1호」, 2024.06.07.
- 금융위원회,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02.25.
- Jordà, Ò., 「Estimation and Inference of Impulse Responses by Local Proj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5.03.
- 한국은행, 「금융완화 축소가 제주지역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8.07.10.
- KDI 경제전망,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2023.05.02.
- Cecchetti, S. G., Mohanty, M. S., & Zampolli, F., 「The real effects of debt」, BIS Working Paper, No.352, 2011.09.
-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2024.06.09.
- 한국은행, 「2024년 8월중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2024.10.2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리’ 및 ‘금융기관 지역별 여수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융합정보 집계자료’.
-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주택매매 거래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소비자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신용보증료율 0.2%p 할인”, 여성가족부, 2024.10.22.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2024.10.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확정…국내 배터리 업계 혜택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2024.10.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 금융위원회, 2024.10.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11월 1일 ‘유보통합포털’ 개통”, 교육부,

2024.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국토교통부, 2024.10.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2024.10.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2024.10.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엄청난 세일 축제가 온다…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24.11.01.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1호(2024.11.08)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11월 08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